

# 멈춰선 '위드 코로나'...연말 기대했던 자영업자 망연자실

### 모임 제한 대목 매출 타격 불가피 새 방역조치 영업시간 제한 빠져 손실보상법 보상도 못받아

### 광주 지난해 12월 카드 매출액 2019년보다 20% 이상 급감 음식·숙박·개인서비스 타격 커

하루 5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6일부터 4주 동안 광주·전남지역 사적모임이 8인까지로 제한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사적모임이 12인까지 허용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 자영업자들

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방역조치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신한·하나카드사로부터 입수한 지역 가맹점 카드사용금액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첫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광주지역 카드 가맹점 매출은 5982억500만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6178억8200만원) 보다 3.2%(-196억7700만원) 감소했다. 해당 통계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올해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2019년과 대비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2019년 7-9월보다 올해 매출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8.6%), 제주(-4.6%), 광주(-3.2%), 인천(-2.9%), 경남(-0.9%), 부산(-0.7%) 등 6곳이었다. 한은이 2019년을 기준으로 두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한 1-3차 시기 카드매출 변동폭을 분석해보니, 1-2차 시기에는 매출이 연달아 떨어졌지만 3차에는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다. 광주의 경우 코로나 1차 확산기(지난해 8-9월) 카드매출은 2019년 평균(기준치=0)보다 4.2%포인트 감소했고, 2차(지난해 11월-올해 2월)에는 19.8%포인트 급락했다. 전국적인 재확산이 일어난 3차(올 7-10월)에는 2019년보다 카드 매출이 4.1%포인트 증가했다. 단 전국 광역시 평균 증가율 7.8%포인트에는 크게 못 미쳤다. 전남도 1차(-5.2%포인트), 2차(-13.4%포인트)에 걸쳐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했지만, 3차 때는 13.3%포인트 증가했다. 3차 시기 도(道) 지역

평균 증가율은 12.0%포인트였다.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1-10월 기준 카드 매출을 비교해보니 올해 광주 매출 감소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를 나타냈다. 올 1-10월 신한·하나카드 광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33억2300만원) 감소했다.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지역은 부산(-12.0%)과 광주, 인천(-0.8%), 울산(-0.5%) 등 4개 지역이었다. 광주 카드 매출(1-10월)은 2019년 1조9368억원, 2020년 1조9050억원, 올해 1조8717억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전남은 지난 2019년 1조 6426억원에서 2020년 1조6173억원으로, 1.5%(-253억원) 감소했다. 올해는 1조6947억원으로, 전년보다 4.8%(774억원)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 3차 시기에는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백신접종이 가속화하면서 이전과 달리 부정적 파급영향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일상회복'

이 멈추면서 이 같은 경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3차 확산 때는 도·소매와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은 카드매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숙박·음식점업 카드매출액 감소율(2019년 대비)은 1차 22.3%포인트→2차 32.9%포인트→3차 13.7%포인트 등으로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서비스 부문 감소율도 1차 3.8%포인트→2차 21.6%포인트→3차 7.6%포인트 등으로 마친 가지는. 한편 신한·하나카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12월 카드매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광주 매출액은 1661억원으로, 전년(2099억원)보다 20.9%(-438억원) 급감했다. 전남도 1750억원에서 1536억원으로, 1년 새 연말 매출이 12.2%(-214억원)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비트코인 6100만원대로...하루새 7.2% 급락

### 금리인상·변이 출현 등 영향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해 6100만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일 오전 11시10분 현재 1비트코인은 6176만6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약 7.2% 하락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하락한 617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000만원 후반~7000만원 초반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한때 1000만원 넘게 내리며 5600만원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5000만원 중반을 기록한 것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이다. 간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은 하루 새 22% 폭락하며 4만2000달러선이 깨지기도 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트코인은 4만9000달러 안팎서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규모가 큰 이더리움도 전날 국내 두 거래소에서 430만~46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5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오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비트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고성장 기술주의 약세가 가상화폐에 악재가 됐다. 진단도 나온다. /연합뉴스

## 소득 상위 10~30% 자산 1억5000만원 늘어

### 코로나 시대 부유층 자산 크게 증가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내 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총자산이 1년 새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 금융경영연구소는 5일 발간한 '2021년 자산관리 고객 분석 보고서: 팬데믹 시대의 대중부유층(mass affluent)'에서 지난 9~10월 가구 소득 상위 10~30%(세전 7000만~1억 2000만원)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하고 전국 4000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부유층의 올해 평균 총자산은 9억13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901만원 늘었다. 부채는 2962만원 늘어난 1억4834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자산은 7억6540만원이었다.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7억5042만원, 금융자산 1억2077만

원, 가상화폐 등 실물자산 4254만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부동산자산이 지난해(6억8999만원)보다 1억4143만원(23.2%) 늘어나 총자산이 많이 증가했다"면서 "부채도 지난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율도 대폭 높아지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드러낸 응답자도 늘었다. 대중부유층의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은 24.3%로 지난해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예·적금,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의 비율은 각각 3.6%포인트, 2.9%포인트, 1.4%포인트 하락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추구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9.9%포인트 늘어난 43.6%였다. 코로나 확산 이후 근로활동 가치가 '낮아졌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답변의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활동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8.7%였고, 높아졌다는 15.5%였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퇴직연금 이벤트 경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 세 번째)은 최근 동구대인동 본점에서 지난 8~10월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펼친 '아무튼 개인형IRP, 든든한 연금준비' 1등 당첨자(이류 관리기) 등에 경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채권형펀드 자금 코로나 이후 최대규모 유출

### 지난달 2조3492억원 빠져나가

시장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형펀드에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채권형 공모펀드에서 새로 설정된 금액은 1조7179억원, 해지된 금액은 4조670억원으로 2조3492억원이 순유출됐다. 월간 순유출 규모로는 코로나19로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작년 3월(3조3765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에서 2조2257억원,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에서 1235억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펀드의 자금 유출은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채권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채권형 공모펀드는 지난 6월(1조1568억원), 7월(1조8053억원), 8월(5314억원), 9월(3810억원), 10월(885억원)에 이어 6개월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 중기부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6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와 수탁기업 1만2000개가 대상으로, 납품대금 미지급과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펼친다. 중기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와 교육명령을 내리고 개선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명을 공표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9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20	26	33	44	45	2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86,955,563		12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8,515,710		58		
3	5개 숫자일치	1,674,636		2,373		
4	4개 숫자일치	50,000		124,311		
5	3개 숫자일치	5,000		2,105,282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